

광주천변 암매장 발굴조사 추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암매장 발굴 조사가 광주천변에서 진행된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8일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부근에 대한 암매장 발굴 조사를 위해 광주시, 서구청과 실무 협의를 벌였다.

이 곳은 전복에 살고 있는 한 제보자가 5·18 당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암매장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곳이다.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유의미한 신호가 감지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시·서구청과 실무 협의

탐사레이더 신호 감지...늦어도 다음 주까지

재단은 대한문화재연구원과 일정을 협의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기념재단이 발굴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예산은 2000만원 정도로, 발굴 조사를 4~5일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도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한 경우 기념재단은 앞으로 발굴 조사를 옛 광주교도

소로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995년 5월29일 서울지검 조사에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사실을 털어냈던 5·18 당시 3공수여단 본대대장 김모 소령 등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암매장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당시 가해자였던 이들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돼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념재단이 맡아야 할 일"이라며 "한 달 평균 6000만~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재단이 사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암매장 발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광주서 남성 셔틀열차 치어 숨져

19일 오전 10시45분께 광주 광산구 극락강역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철길에서 한 남성이 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철길은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갑자기 열차로 뛰어들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완도해경, 턱 골절 응급환자 긴급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안)는 지난 18일 완도군 금일도에서 턱 골절 환자가 발생해 긴급이송에 나섰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20분경 완도군 금일도에 거주하는 이모씨(71세, 여)가 돌니를 교체하던 중 아래턱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노화보건지소에서 내원한 결과 턱 골절로 의심되어 완도해경 상황실로 이송을 요청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신고접수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편승시킨 후 원격의료시스템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오후 8시 10분경 당파함에 대기 중인 119구조대에 응급환자를 인계했다.

김영안 서장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과 해상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으로 국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3명 신체 몰래 촬영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상경찰서는 A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0일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숨기고 동료 여교사 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교사들은 지난달 4일 학교에 고소사실을 알렸고, 학교는 다음날 부산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같은 달 6일 A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가 나온 대로 A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등 30명 적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캄보디아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책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급받은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한 충북 총판 정모(57)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고모(30)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 서버를 두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배팅 받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차량타이어 4짝 훔친 40대 입건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 4개를 모두 훔쳐 자신의 차량에 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양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신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4)씨의 타이어 4개(2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같은 차종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일제점검 협조공문 발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1887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일제점검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협조 요청을 발송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당국,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용과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의 온도·습도·산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소 2시간마다 세척·소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손 위생, 무균술, 기구 소독, 마스크 및 기운 착용, 방문객 관리 등 공기오염 및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아를 보호하기 위한 위생수칙 준수도 요청했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점검표를 제공해 점검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약물 투여 시 정확한 환자·의약품·용량·시간·투여 경로와 관계된 'BRIGHT' 지침 준수, 의료법에 따라 중환자실 시설 규격·전담인력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의 겨울을 지켜주세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을 촉구하는 북극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법원 "환자 과거력·질환 확인 뒤 급성 반응 예방해야"

특정 약물을 통한 CT 촬영을 처방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력과 질환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자의 급성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처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 씨와 A 씨의 자녀 2명이 지역 모 병원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숨진 C 씨의 배우자이다. C 씨는 2015년 12월16일 오전 9시50분께 편두통을 호소하면서 A 씨와 함께 지역 모 병원을 찾았다.

의사 B 씨는 C 씨의 뇌 CT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정 조영제를 처방했다. C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6분께 CT 촬영을 시작, 10시18분께 조영제를 투여받고 10시20분께 CT 촬영을 마쳤다.

CT 촬영 뒤 C 씨는 가려움·콧물

흘림·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B 씨는 C 씨에게 주사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C 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B 씨는 C 씨에게 산소공급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던 같은 날 10시33분께 119에 신고했다.

C 씨는 119에 의해 같은 날 오전 11시55분께 다른 병원으로 도착했으며, 이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판정시각 같은 날 오후 12시55분)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진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인해 C 씨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 경도의 구토·무드러기·가려움증 등의 경증 심한 구토·현저한 무드러기·기관지 수축·자혈압상 소크·호흡정지·심정지·경련 등 중증의 급성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처방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급성유해반응 과거력·전신·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 같은 과거력·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의 경우 요오드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급성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처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B 씨에게는 해당 조영제를 처방함에 있어 C 씨의 과거력·질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영제 투여 뒤 발생할 수 있는 급성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C 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쇼크를 일으킨 C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인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